

두바이·미국...세계를 달린 한국경주마

美 브리더스컵 입상 등 높아진 위상
중계 수출·컨설팅 해외진출 신바람

한국경마는 지난해 경마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세계적으로 경마를 시행하는 국가는 100여개 이상이며 이중 PART I·II에 속한 국가는 30여개에 불과하다. 한국은 현재 PART II 국가로 분류된다.

경마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경마국제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다양한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부문은 경주마의 능력 향상이다. 지난해 3월 당시 세계 최고상금을 내건 두바이월드컵에 한국 경주마 돌풍이 출현했다. 두바이월드컵 참가 3년 만에 이룬 성과다. 비록 입상은 못했지만 모든 경주마가 꿈꾸는 세계무대를 밟은 것만으로도 의미는 상당하다.

9월 국내에서 열린 제4회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국제대회에서는 한국경주마가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경마 중 주국인 영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등 강국들의 경주마가 나섰으나 문학치프와 블루치퍼 등 한국 경주마들의 역주를 막을 수 없었다.

11월에는 코리아스프린트 우승마인 블루치퍼가 미국에서 열린 브리더스컵에서



코리아스프린트 우승마인 블루치퍼(사진)는 지난해 11월 열린 세계적인 경마대회 미국 브리더스컵에서 3위를 차지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국제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3위를 차지했다. 미국 브리더스컵은 이틀간 총상금 336억 원을 놓고 14개 경주가 펼쳐지는 경마세계대회다.

한국경주마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경마실황중계 수출에도 손풍이 불었다. 코리아컵 국제대회를 비롯해 한국경마 실황이 싱가포르, 호주, 미국, 영국 등 12개국에 수출됐다. 특히 남미 칠레에 실황중계 수출을 성사하면서 사업 6년 만에 아프리카를 제외한 5개 대륙에 경마실황을 송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국경마 자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왔다. 한국마사회는

베트남 DIC사와 유상으로 베트남 경마사업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문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6월 베트남 현지에서의 자문계약 체결 이후 최근 1차 자문사업을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사회는 올해 1월 중에 베트남과 2차 사업을 체결할 방침이다. 경마장 건설, 인력 및 경주마 운영, 인프라 구축 등 세부 플랜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마사회 관계자는 “단순히 자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트남이 한국의 경마계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경주마에서 발

매장비, 인력에 이르는 모든 부문에 걸쳐 수출이 연계될 수 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경주실황 수출과 더불어 한국경마 시스템 자문사업은 향후 한국 경마산업의 외연 확장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2019년은 한국경마 국제화 무대의 발판이 된 한해였다. 2020년 역시 경마수출, 대회입상 등 국제화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고 PARTI 경마시행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마사회, 26개 복지단체 4억원 지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하반기 국민공감·농어촌동행 기부금’ 수혜 단체를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27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마사회는 이번 기부금 사업을 통해 국민공감·농어촌동행 기부금 지원 사업은 전국 소재의 노인복지시설·단체 및 농어촌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공모접수를 시작했다. 마사회는 사업수행능력, 적합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종 26개 단체를 선정했다. 분야별 수혜단체들은 선정된 사업수행을 위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모르피스냐, 워너골드냐...새해 첫 1등급 경주 주인공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서울 경마공원에서 새해맞이 기념경주 1월 5일 제11경주 주로 열린다. 새해 첫 1등급 경주로 1600m 중거리이며, 총 상금은 1억1000만 원이다.

●**모르피스**(거세마, 5세, 미국, 레이팅 110, 박남성 마주, 이관호 조교사, 승률 31.6%)
출전마 중 가장 높은 도입가를 자랑한다. 높은 몸값만큼 성격도 우수하다. 2018년 10월 2등급 승급 이후 지금까지 우승

4회, 2등 2회, 3등 2회, 4등 1회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400m 경주에서 이번 경주 경쟁자인 이스트팔로스, 장산파워, 문학조이 등과 맞붙어 우승했다.

●**워너골드**(수말, 5세, 미국, 레이팅 112, 전영범 마주, 우창구 조교사, 승률 42.1%)
2018년 5월 1등급 승급 후 꾸준히 순위상금을 획득했다. 부경 오너스컵에서 1600m를 첫 출전해 쟁쟁한 마필과의 경쟁해 4위

로 순위상금 획득했다. 당시보다 2kg 높은 부담중량을 이겨내고 다시 1600m에서 발군의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클린업특급**(수말, 5세, 한국, 레이팅 85, 민형근 마주, 박재우 조교사, 승률 42.9%)
유명 씨수마 매니피의 자마다. 데뷔 후 2019년 1월 경주까지 출전한 모든 일반경주에서 2위 안에 들었다. 그러나 1등급 승급 후 높은 벽을 실감 중이다. 1800m 경주

에서 잇따라 직선주로서 순위권 밖으로 밀리며 약한 모습을 보였다.

●**장산파워**(수말, 6세, 한국, 레이팅 103, 김병진 마주, 박재우 조교사, 승률 30.8%)
2017년 일간스포츠배 우승 이후 출전한 18회의 경주 중에 순위상금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 3번 뿐인 정도로 꾸준하다. 2019년에는 출전한 전 경주에서 순위권에 안착했다. 단거리와 중거리 위주로 출전했으나, 지난해 거리가 긴 9월 HKJC 트로피 특별경주(1800m)에서도 2위로 입상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전국 말생산농가 예방접종 시행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2019년도 전국 말 예방백신 접종사업’을 통해 상·하반기에 걸쳐 주요 말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했다. 상반기(4~5월)에는 예방백신 2종(인플루엔자, 일본뇌염)을 1만8000여두에 접종했다. 하반기(10~11월)에는 2종(말인플루엔자, 선역) 예방백신을 1200여 농가의 말 1만9000여두 규모로 지원했다. 접종을 받으려면 생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말은 주로 봄에 분만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접종대상을 1000여두 확대 시행했다. 정용운 기자



축구팬 70% “홈팀 발렌시아, 에이바르 꺾는다” 새해 첫 주말...농구토토 9개 회차 연속 발매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중간집계
AS로마는 토리노 격파 78% 예상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포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1월 4일(토)부터 7일(화)까지 벌어지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7경기와 이탈리아 프로축구(세리에A) 7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발렌시아-에이바르(1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69.64%가 홈팀 발렌시아의 우세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19.88%로 나타났고, 원정팀 에이바르의 승리 예상은 10.48%로 집계됐다.

이번 주말 발렌시아와 에이바르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9라운드에서 맞붙는다. 현재 발렌시아는 리그 8위(7승7무4패)로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에이바르는 리그 하위권인 16위(5승4무9패)에 머물러 있다.

허벅지 부상에서 탈출한 이강인 선수가 팀 훈련에 합류한 발렌시아는 최근 2승2무의 성적을 거둬 4경기째 무패행진을 기록하는 등 기세가 좋다. 반면, 에이바르는 최

근 7경기에서 2승1무4패의 부진한 성적을 거둬 갈 길이 멀다.

홈에서 토리노를 맞이하는 AS로마의 승리 예상은 78.41%로 집계돼 세리에A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팀의 무승부 예측과 토리노의 승리 예상은 각각 12.87%와 8.72%로 나타났다.

리그 4위(10승5무2패)에 올라있는 AS로마는 최근 스팔2013과 피오렌티나에게 2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리그 10위(6승3무8패) 토리노는 2019년 12월 21일 스팔2013과의 맞대결에서 1-2로 패해 분위기가 한 풀 꺾였다.

2전 2승으로 지난 시즌 양팀의 맞대결에서도 우세함을 가지고 있는 AS로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토토팬들의 예상과 같이 AS로마가 토리노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어 리그 11위(6승3무8패)에 위치한 AC밀란도 70.37%로 높은 투표율을 얻었다. 양팀의 무승부 예상과 리그 17위(4승3무10패)에 머물고 있는 원정팀 삼프도리아의 승리 예상은 각각 18.07%와 11.56%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번 승무패 1회차는 오는 1월 4일(토) 오후 8시 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KBL·WKBL·NBA 대상

(주)케이토토(www.ktoto.co.kr)는 새해인 1월 첫 주말을 통해 KBL과 WKBL, 그리고 NBA등을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9개 회차를 연속으로 발매한다고 밝혔다.

국내여자프로농구(WKBL) 1경기 2팀의 전반 및 최종 점수대를 맞히는 W매치의 경우 3일 오후 6시50분에 마감하는 3회차(BN K썬-삼성생명)를 시작으로, 4일 4회차(KB 스타즈-신한은행), 5일 5회차(삼성생명-K EB하나) 등 모두 3개 회차가 발행된다.

남자프로농구(KBL) 1경기로 농구팬을 찾아가는 매치게임은 3일 오후 6시에 벌어지는 모비스-전지랜드전으로 올해 1회차를 시행한다.

국내 남자프로농구를 대상으로, 2경기(더블) 및 3경기(트리플)의 최종 점수대를 맞혀야 하는 스페셜 게임은, 4일 오후 3시에 벌어지는 서울SK-창원LG(1경기), KCC-원주DB(2경기), 부산KT-안양KGC(3경기)전을 대상으로 하는 1회차와, 다음 날인 5일에 열리는 모비스-서울SK(1경기), 창원LG-전지랜드(2경기), 서울삼성-KCC(3경기)전으로 2회차를 발행한다.

미국프로농구 NBA로 펼쳐지는 스페셜N은 3일 오전 10시20분에 2회차를 마감하고



이어지는 3회차는 다음 날인 4일 오전 9시 50분까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프로농구 14경기를 맞히는 승무패는 4일과 5일에 열리는 KBL 7경기와 NBA 7경기를 대상으로 농구팬을 찾아가며, 4일 오후 2시50분에 마감한다.

베트맨, 1월 건전구매 캠페인 시행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포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이 2020년 새해 1월의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인 'Hello, 2020!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건전화하게!'를 실시한다.

건강한 베테랑문화에 앞장서고자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베트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인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건전구매 캠페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 진단평가'란 자신의 게임성향을 진단해 자신의 게임 몰입도를 점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셀프 구매계획'은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금액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밖에 '건전구매 캠페인'은 건전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통해 건전한 토토 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위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할 경우 이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삼성 갤럭시 버즈(2명)와 나이키 배워머(10명), 그리고 롯데시네마 영화예매권(20명)을 증정한다. 또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틀 500개를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월31일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2월 4일(화)에 공지된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